

에너지 수급 브리프

2021년 11월

두 차례 유류세 인하 정책 사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높은 국제원유가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이번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인데, 과거 사례와 비교하여 이번 유류세 인하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물가도 계속해서 인상됨에 따른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직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반영되었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들어 이러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관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더욱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후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관리 감독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희선 전북대학교 조교수(heesunjang@jb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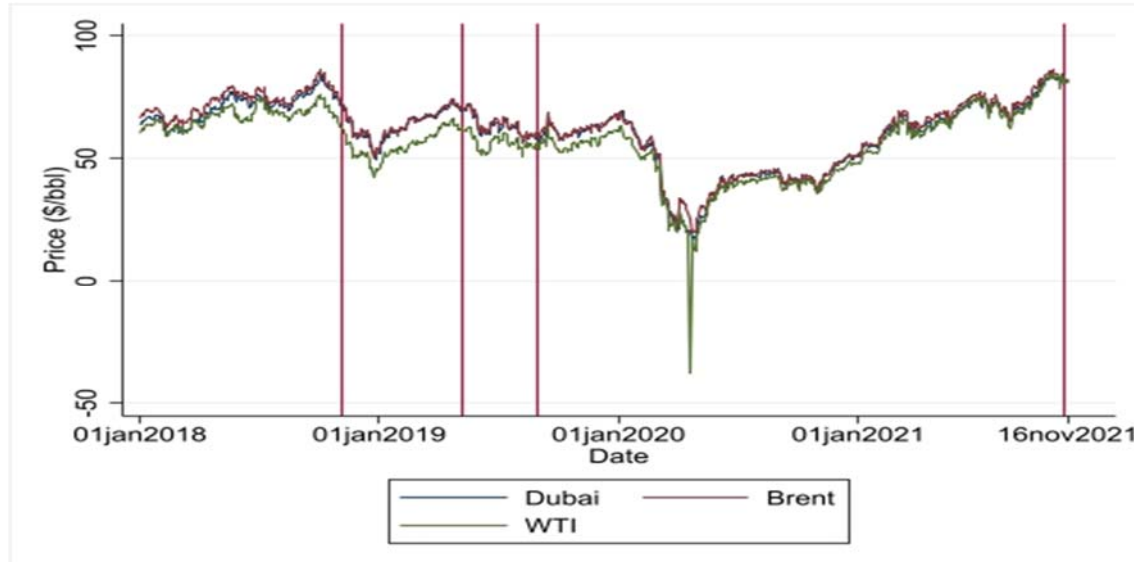
올 한 해 국제원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2020년 4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0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경험을 했고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도 10달러선까지 하락하였는데, 이후 가격수준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2021년 10월에는 80달러 이상까지 상승하였다.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지난 2000년 2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와 12% 인하했던 것을 시작으로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해 유류세를 10% 인하하였다. 이후 2018년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15% 인하하였으며, 15% 인가가 종료된 후 기한을 연장하여 4개월간 유류세를 7% 인하한 바 있다. 과거 세 차례 유류세 인하 사례와 비교해서 이번 유류세 인하 정책의 특징은 우선 인하율이 20%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통상 유류는 유통과정의 특징으로 인해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1주일에서 2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부 정책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분을 시행 첫날부터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오픈넷 홈페이지에 개별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 반영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한편 그림1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원유 가격 추이를 보여준다. 네 개의 수직 선은 각각 2018년 유류세 15% 인가가 시작된 시점, 15% 인가가 종료되고 7% 인가가 시작된 시점, 유류세 인가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 그리고 이번에 유류세 20% 인가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준다.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당시와 최근의

국제원유가격을 비교해 보면 가격 수준 자체도 높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눈에 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국제유가가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림1. 국제원유가격 추이(2018년 1월 1일~2021년 11월 16일)



우리나라 유류세 현황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신축성이다. 조세제도의 신축성을 활용하여 경제 여건이 변화할 때 정부가 조세수단을 통해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류세는 리터당 일정액을 과세하는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하며, 여기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최대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여 경기나 물가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그리고 주행세로 구성되며, 여기에 유류의 세전 가격에 유류세를 합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서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먼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의 기본세율에 1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529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기본세율에 10.3%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375원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를 기본세율로 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유의 교육세는 리터당 79원, 경유는 56원을 부과하고 있다.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를 기본세율로 현재 휘발유의 주행세는 리터당 138원, 경유는 98원이다. 이를 합하면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당 745.89원을, 경유에는 리터당 528.75원을 유류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까지 합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0.47원을, 경유는 리터당 581.62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함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1원, 경유는 리터당 116.32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였다. 즉,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주유소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된다면 유류세 인하분에 해당하는 만큼 판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유류세는 종량세로서 리터당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제원유가격 수준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지게 된다. 국제원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는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국제원유가격이 높은 상황에서는 유류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높은 국제원유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판매가격 대비 유류세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임상수·박지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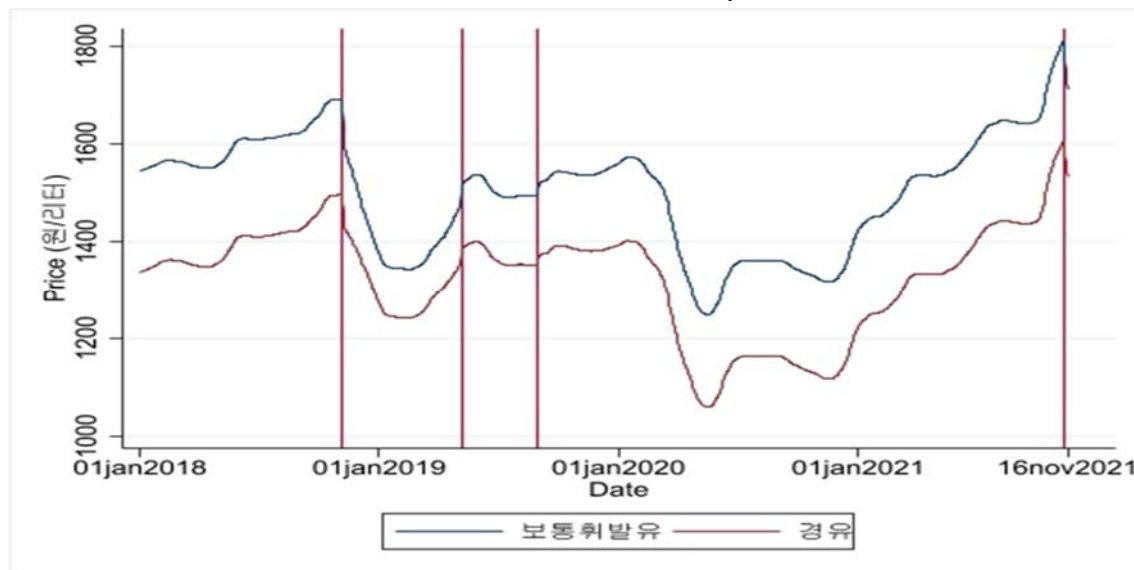
한편 국제원유가격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와 30% 수준을 상회한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유류세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대기오염 수준, 교통혼잡도, 석유 대의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세금비중은 현재보다 높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조명환, 2009).

두 차례 유류세 인하 효과의 비교

그림2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국 주유소들의 보통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을 보여준다. 이는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기간을 포함하며, 이번 11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후 첫 5일 동안의 기간을 포함한다. 두 차례 모두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평균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장희선(2021)은 서울시에 위치한 541개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유류세 인하분의 약 87%와 73%가 보통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에 평균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번 유류세 인하의 경우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2021년 11월 11일 1,810원에서 인하 첫날인 11월 12일에는 1,767원으로 43원 하락하였으며, 시행 5일차인 11월 16일에는 1,711원으로 56원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였다. 경유 가격은 11월 11일 1,605원에서 시행 첫날인 11월 12일에는 1,575원으로 30원 하락하였고, 시행 5일차인 11월 16일에는 1,531원으로 44원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였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고 첫 5일 동안 보통휘발유 가격은 평균 99원, 경유 가격은 평균 74원 하락하였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완전히 판매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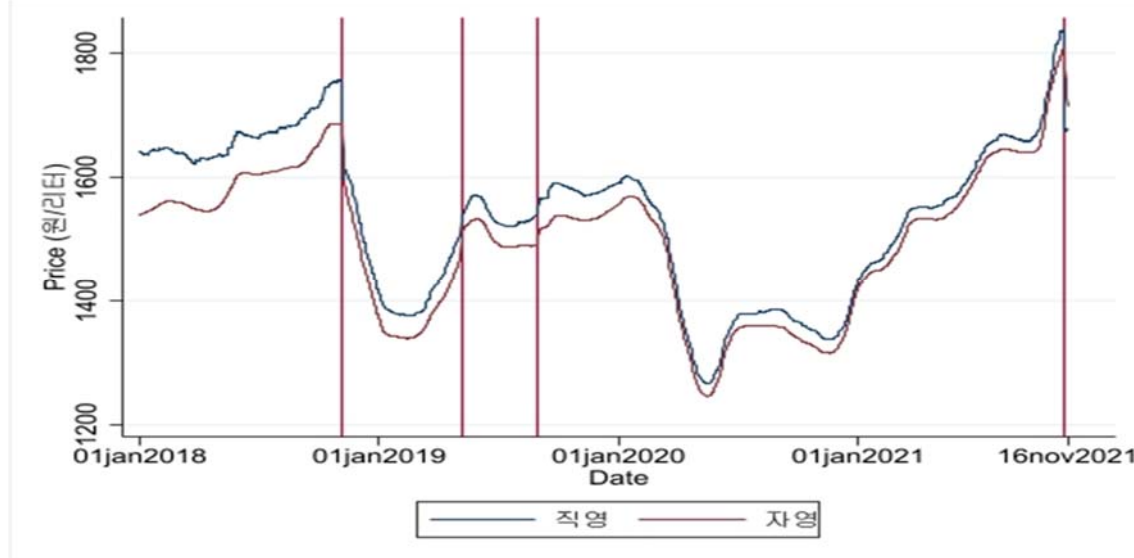
그림2. 두 차례 유류세 인하와 국내 주유소 평균 가격의 변화(2018년 1월 1일~2021년 11월 16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정책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분을 시행 첫날부터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3은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을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로 나누어 보여준다. 전 기간에 걸쳐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자영주유소에 비해서 높은 반면, 최근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직후 자영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직영주유소보다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직영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11월 11일 1,837원에서 시행 첫날인 11월 12일 1,675원으로 162원 하락해서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5일차인 11월 16일 직영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1,677원이다. 한편 자영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11월 11일 1,808원에서 시행 첫날 1,774원으로 34원 하락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1,714원으로 60원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였다. 경유의 평균 가격을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로 나누어 보는 경우에도 보통휘발유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직영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11월 11일 1,626원에서 시행 첫날 1,511원으로 115원 하락하여, 보통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직영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시행 첫날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시행 5일차인 11월 16일 경유 평균 가격은 1,513원이다. 자영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11월 11일 1,604원에서 시행 첫날 1,579원으로 25원 하락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1,533원으로 46원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림3.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의 보통휘발유 가격 차이 변화(2018년 1월 1일~2021년 11월 16일)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림1의 국제원유가격과 그림2 및 그림3의 주유소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볼 때, 국제원유가격의 추이를 감안하더라도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주유소 판매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2018년 유류세 인하 사례의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책 시행 직전 상승하다가 유류세 인하가 시행됨에 따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유류세 인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원유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면서 하락하였다. 특히 그림3을 보면 직영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도록 하면서 유류세 인하 시행을 앞두고 자영주유소에 비해 직영주유소의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과 시사점

유류세 인하 정책의 한계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어 왔다. 첫 번째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영숙·박정환·김재혁(2019)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가 소득 1분위 가구에서는 지출의 0.8%를 차지하는 반면, 10분위에서는 2.9%를 차지하는 등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비지출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경유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8년 유류세 인하 결과, 소득 1분위 가구에서는 연평균 1.5만 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된 반면, 소득 10분위 가구에서는 15.8만 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어 유류 소비량이 높은 소득 상위분위 가구일수록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원유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판매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탄소중립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오히려 내연기관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상수·박지혜(2012)는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해서 물가 안정 정책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유류세 인하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유가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에 비해 유류세 인하 수단을 선택하는데도 이유는 있다. 국제원유 가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유가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 정책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 개정이나 국회를 거쳐야 하는 방안이라서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유류세 인하는 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령상으로 3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적으로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란에서 경험하였듯, 유류세 환급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최근 들어 유류세 인하 정책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향후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관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유류 소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교정세의 역할을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가격은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유류세는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 수준에 달하여 국가 재정운영의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물가 안정과 조세 수입, 그리고 친환경적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1.10.26.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 12일부터 휘발유 ℓ 당 164원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장희선. 2021. 유류세 한시적 인하의 주유소 판매가격 효과. 에너지경제연구
조명환. 2009.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 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재정 포럼
이영숙·박정환·김재혁. 2019.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임상수·박지혜. 2012.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유류세 인하가 대응은 아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1.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에너지 시장

□ 10월 평균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12.6%, LNG는 8.2%, 석탄은 27.6% 상승하며 빠른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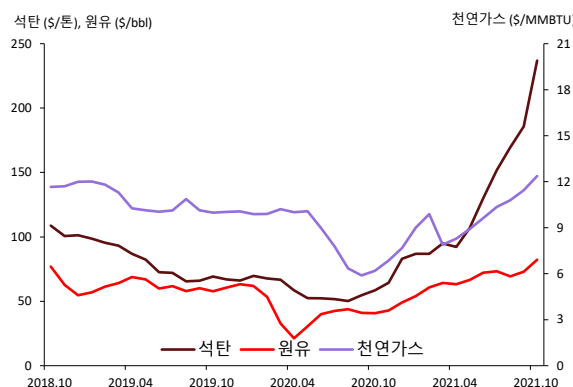
- 10월 국제유가는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위축 및 인플레이션 심화와 OPEC+의 증산 규모 유지, 가스를 대체하는 석유 수요 발생 등 가격 상승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10% 이상 상승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중국의 산업 생산 및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석탄 공급 감소 등으로 발전 부문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력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에너지가격 상승도 야기
 - OPEC+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된 증산 규모 40만 b/d를 유지하기로 합의
 -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발전 및 산업 부문에서 가스 수요를 대체하는 석유 수요가 발생
-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스의 석탄 대체와 기상이변에 따른 풍력 발전량 급감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 상승
- 호주산 석탄 가격은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 및 석탄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대폭 상승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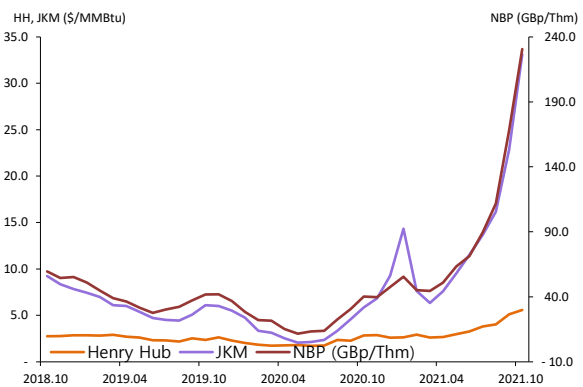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원유 (\$/bbl)	68.6 (29.5)	61.6 (-10.2)	41.6 (-32.4)	66.6 (5.2)	72.1 (8.3)	73.2 (1.5)	69.2 (-5.4)	73.0 (5.5)	82.2 (12.6)
LNG (\$/MMBTU)	10.7 (24.0)	10.6 (-1.1)	8.3 (-21.3)	8.9 (7.7)	9.6 (7.9)	10.4 (7.7)	10.8 (4.3)	11.4 (5.9)	12.4 (8.2)
석탄 (\$/톤)	107.0 (20.9)	77.8 (-27.3)	60.8 (-21.9)	107.0 (16.1)	130.0 (21.4)	152.0 (16.9)	169.6 (11.6)	185.7 (9.5)	236.9 (27.6)
천연가스 선물가격									
Henry Hub (\$/MMBtu)	2.7 (-1.5)	2.5 (-6.2)	2.1 (-16.0)	3.0 (10.9)	3.3 (10.6)	3.8 (16.6)	4.0 (5.7)	5.1 (26.9)	5.6 (8.9)
NBP (GBP/Thm)	48.2 (22.4)	37.5 (-22.2)	25.6 (-31.8)	63.4 (24.5)	71.4 (12.5)	89.6 (25.5)	111.8 (24.8)	168.1 (50.4)	230.6 (37.2)
JKM (\$/MMBtu)	7.7 (122.2)	5.7 (-26.4)	4.2 (-26.4)	9.5 (25.3)	11.5 (21.0)	13.7 (18.6)	16.2 (18.3)	22.9 (41.4)	33.1 (44.8)

주: 국제유가는 Brent, Dubai, WTI의 평균, 천연가스는 일본 CIF 액체상태 수입 가격 기준, 석탄은 호주산 기준,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World Bank, CME Group(www.cmegroup.com)

국제 주요 에너지 가격



국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



국내 수입 가격

□ 10월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는 모든 에너지원이 빠르게 상승

- 원유 수입 단가는 8~9월의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월에 다시 빠르게 반등하며 국제 가격 상승에 동조
- LNG 수입 단가는 장기계약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JKM 현물 가격이 10월 6일에만 40% 이상 폭등하는 등 spot 물량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16.9% 상승으로 상승폭 확대
- 석탄 수입 단가도 중국발 석탄 석탄 수급 불균형 여파가 지속되면서 3개월 연속 10% 이상 상승
- 국내 LPG 수입 단가는 프로판과 부탄이 전월 대비 각각 11.8%, 11.9% 상승
 - 9월 국제 프로판, 부탄 가격은 각각 665.0 \$/톤, 665.0 \$/톤으로 전월 대비 각각 0.8%, 1.5% 상승에 그친 반면, 10월에는 각각 800.0 \$/톤, 795.0 \$/톤으로 각각 20.3% 19.5%나 상승하면서 수입단가 상승을 견인
 - 국내 10월 LPG 공급가격은 100원/kg이 넘는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인상 끝에 동결

※ 국내 LPG 공급가격은 SK가스, E1 등 국내 LPG 수입사들이 전월의 국제 LPG 공급가격(사우디 아람코社)을 기반으로 환율, 세금, 유통비용, 타 경쟁연료와의 상대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달 초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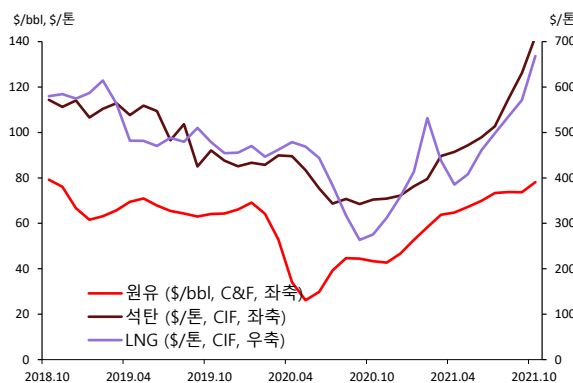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원유 (\$/bbl, C&F)	71.4 (34.0)	65.5 (-8.2)	44.7 (-31.7)	67.2 (3.7)	69.9 (4.0)	73.4 (5.0)	73.8 (0.6)	73.7 (-0.1)	78.2 (6.1)
LNG (\$/톤, CIF)	526.3 (26.4)	504.8 (-4.1)	390.0 (-22.7)	408.1 (5.9)	460.9 (12.9)	498.1 (8.1)	534.6 (7.3)	571.3 (6.9)	667.9 (16.9)
석탄 (\$/톤, CIF)	113.6 (8.9)	100.7 (-11.4)	77.7 (-22.9)	94.4 (3.2)	97.9 (3.7)	102.8 (5.0)	114.7 (11.6)	126.2 (10.0)	142.2 (12.7)
국내 LPG 수입 단가									
프로판 (\$/톤, CIF)	570.9 (19.7)	456.5 (-20.0)	385.6 (-15.5)	554.8 (-5.9)	556.7 (0.3)	634.2 (13.9)	672.5 (6.0)	685.0 (1.9)	766.2 (11.8)
부탄 (\$/톤, CIF)	584.4 (13.6)	457.0 (-21.8)	395.6 (-13.4)	532.2 (-4.1)	577.1 (8.4)	625.5 (8.4)	652.1 (4.3)	672.5 (3.1)	752.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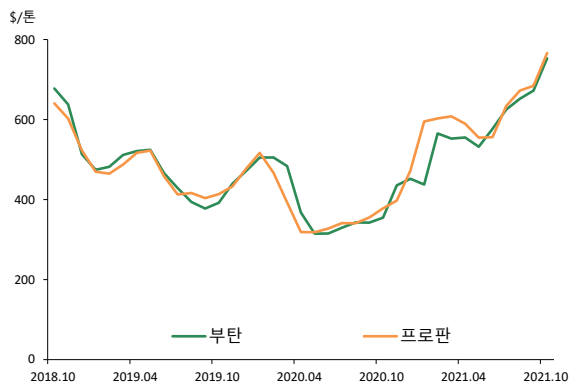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국내 LPG 수입 단가



2. 국내 에너지 가격

석유제품 가격

□ 10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각각 4.2%, 5.0% 상승

-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 평균 가격은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한 것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4.2%, 5.0% 상승. 전년 동월 대비로는 28.4%, 33.1% 상승으로 상승폭이 점차 확대
- 중유(B-C유) 가격은 전월 대비 5.9% 상승으로 4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가격 형성이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6% 상승
- 프로판과 부탄 가격은 10월 LPG 공급가격이 동결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각각 18.7%, 27.2% 상승

□ 산업용 프로판과 도시가스의 상대가격(프로판/도시가스)은 1.46으로 4.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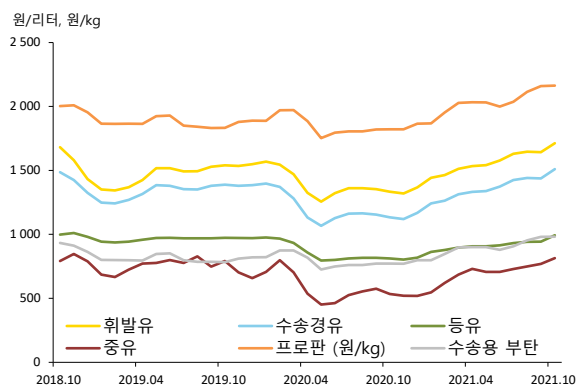
- 프로판 가격을 동결한 반면, 도시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국내 석유제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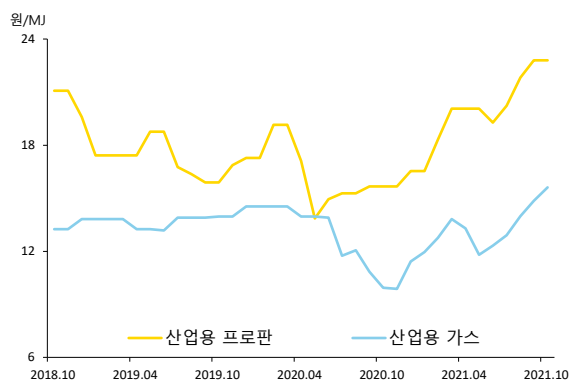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휘발유 (원/리터)	1 581.4 (6.0)	1 472.6 (-6.9)	1 381.2 (-6.2)	1 541.5 (0.5)	1 577.3 (2.3)	1 629.3 (3.3)	1 645.8 (1.0)	1 642.7 (-0.2)	1 712.3 (4.2)
수송경유 (원/리터)	1 392.0 (8.5)	1 340.6 (-3.7)	1 189.5 (-11.3)	1 338.8 (0.5)	1 374.4 (2.7)	1 425.5 (3.7)	1 440.5 (1.1)	1 437.2 (-0.2)	1 509.3 (5.0)
등유 (원/리터)	943.2 (10.7)	962.5 (2.1)	850.5 (-11.6)	906.4 (0.1)	913.9 (0.8)	932.2 (2.0)	940.9 (0.9)	943.0 (0.2)	993.0 (5.3)
중유 (원/리터)	735.2 (18.7)	744.5 (1.3)	572.9 (-23.0)	706.4 (-3.2)	706.4 -	728.4 (3.1)	750.1 (3.0)	768.2 (2.4)	813.4 (5.9)
프로판 (원/kg)	1 920.5 (4.7)	1 869.6 (-2.6)	1 850.3 (-1.0)	2 031.6 (-0.1)	1 999.6 (-1.6)	2 036.4 (1.8)	2 114.5 (3.8)	2 160.1 (2.2)	2 163.4 (0.2)
수송용 부탄 (원/리터)	874.6 (5.8)	806.3 (-7.8)	790.8 (-1.9)	899.4 (0.0)	878.5 (-2.3)	906.3 (3.2)	952.3 (5.1)	980.5 (3.0)	981.2 (0.1)

주: 휘발유, 경유, 부탄은 주유소/충전소 가격, 등유는 실내등유 가격, 중유는 대리점 가격, 프로판은 판매소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업용 프로판 가스 가격 비교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 10월 도시가스 요금은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이 각각 전월 대비 3.9%, 5.2% 상승

- 매월 원료비 연동제로 조정받는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국제 LNG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도매요금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인상되었으나,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16개월 동안 동결
 - 9월에 이어 10월에도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의 도매요금이 전월 대비 0.7원/MJ 인상

□ 10월 열에너지 요금은 2020년 7월의 요금 인하(-2.8%) 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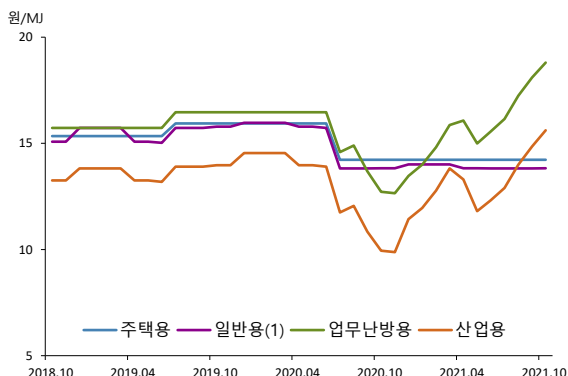
- 10월 열에너지 요금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과 동일하게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16개월 연속 동결
 - ※ 열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며, 1년에 한 번 실제 연료 비용을 반영하여 정산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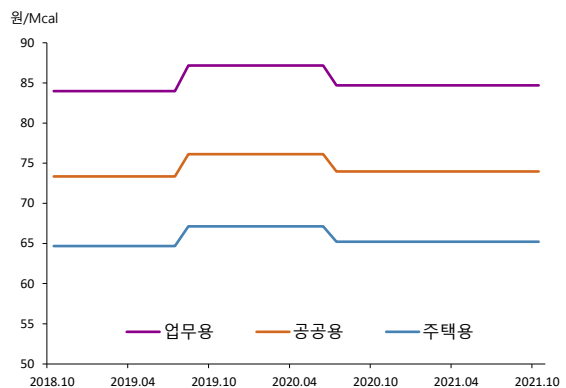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15.1 (-4.3)	15.6 (3.9)	15.1 (-3.6)	14.2 -	14.2 -	14.2 -	14.2 -	14.2 -	14.2 -
업무난방용	15.4 (-4.4)	16.1 (4.4)	15.1 (-6.5)	15.0 (-6.7)	15.6 (3.8)	16.2 (3.8)	17.2 (6.7)	18.1 (5.0)	18.8 (3.9)
일반용(1)	14.9 (-3.8)	15.6 (4.9)	14.9 (-4.7)	13.8 -	13.8 (-0.1)	13.8 -	13.8 -	13.8 -	13.8 (0.1)
산업용	13.0 (-2.3)	13.8 (5.9)	12.6 (-8.5)	11.8 (-11.2)	12.3 (4.3)	12.9 (4.8)	14.0 (8.4)	14.8 (6.1)	15.6 (5.2)
열에너지 (원/Mcal)									
업무용	83.8 (-2.7)	85.3 (1.9)	85.9 (0.7)	84.7 -	84.7 -	84.7 -	84.7 -	84.7 -	84.7 -
공공용	73.2 (-2.7)	74.5 (1.9)	75.0 (0.7)	74.0 -	74.0 -	74.0 -	74.0 -	74.0 -	74.0 -
주택용	64.5 (-2.7)	65.7 (1.9)	66.2 (0.7)	65.2 -	65.2 -	65.2 -	65.2 -	65.2 -	65.2 -

주: 열 요금은 난방용 단일요금 기준(부가세, 기본요금 제외)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서울도시가스(www.seoulgas.co.kr), 지역난방공사(www.kdhc.co.kr)

도시가스 요금



열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 및 연료비 단가

□ 10월 전기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3원/kWh씩 인상

-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처음으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면서 용도별 요금이 전월 대비 3원/kWh씩 인상
 - 2021년 1월 1일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전기 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이 9개월 동안 -3원/kWh로 인하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10월부터 0원/kWh로 조정되면서 3원/kWh씩 인상되었고,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5.3원/kWh까지 고려하면 연료비 연동제 시행 전 대비로는 0.3원/kWh 인상

※ 기후환경요금은 RPS비용(4.5원/kWh), ETS비용(0.5원/kWh),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kWh)이 포함된 5.3원임

□ 10월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는 국제 가격 상승으로 유연탄과 LNG가 각각 전월 대비 4.6%, 4.5% 상승

- 유연탄과 LNG의 국제 가격 및 수입 단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연료비 단가의 상승세가 지속
 - 1월 대비 9월 유연탄, 유류, LNG의 연료비 단가는 각각 36.3%, 41.0%, 46.9%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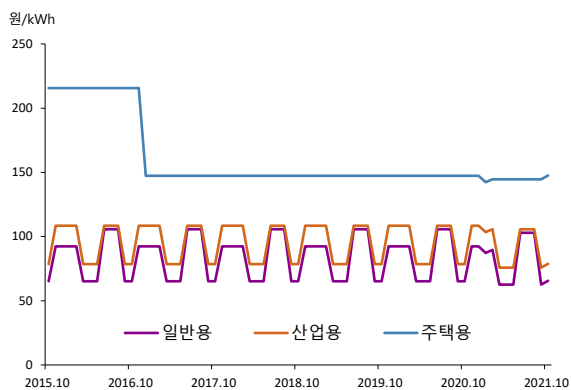
전기요금 및 발전 연료비 단가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전기요금 (원/kWh)									
일반용	84.3	84.3	84.3	62.5	103.0	103.0	103.0	62.5	65.5
	-	-	(0.0)	-	(64.8)	-	-	(-39.3)	(4.8)
산업용	95.9	95.9	96.0	75.8	105.8	105.8	105.8	75.8	78.8
	-	-	(0.0)	-	(39.6)	-	-	(-28.4)	(4.0)
주택용	147.3	147.3	147.3	144.6	144.6	144.6	144.6	144.6	147.6
	-	-	-	-	-	-	-	-	(2.1)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유연탄	54.4	56.4	50.6	53.1	54.5	57.7	57.8	60.6	63.4
	(14.1)	(3.8)	(-10.3)	(8.1)	(2.6)	(5.9)	(0.3)	(4.8)	(4.6)
유류	164.7	181.9	175.5	178.4	178.3	178.4	185.3	197.4	203.6
	(17.9)	(10.5)	(-3.5)	(4.8)	(-0.0)	(0.0)	(3.8)	(6.5)	(3.2)
LNG	97.9	93.3	71.8	79.9	84.0	87.9	96.7	103.5	108.1
	(14.1)	(-4.7)	(-23.0)	(5.0)	(5.2)	(4.6)	(9.9)	(7.1)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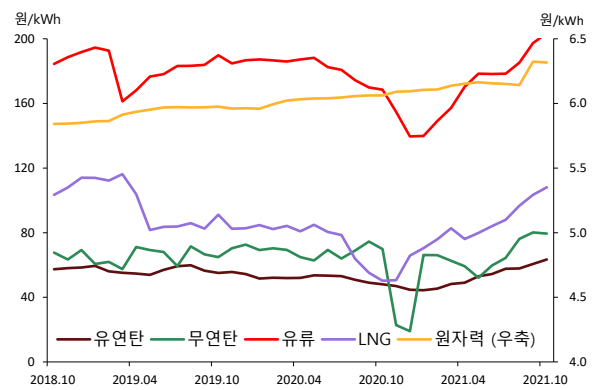
주: 전기 요금은 주택용(고압, 2 구간 전력량 요금), 일반용(갑, 저압), 산업용(을, 고압 B 중간부하)을 사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계약종별 전기 요금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SMP 및 REC 가격

□ 10월 계통한계가격(SMP)은 LNG와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전월 대비 9.1% 상승

- LNG와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가 각각 4.5%, 4.6% 상승한 가운데, 최근 연료비 단가가 빠르게 상승하였던 LNG의 SMP 결정횟수가 늘어나면서 SMP 가격 상승을 전인
 - 10월의 SMP 결정횟수는 총 744회에서 LNG가 727회이고, 유연탄 17회, 무연탄 0회로 LNG의 결정횟수가 전월 대비 157회 상승
 - ※ 계통한계가격(SMP)은 시간단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비용이고, SMP 결정횟수는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에서 어떤 에너지원의 발전기가 SMP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 횟수를 계산한 값
- 반면, 제주의 SMP 가격이 전월 대비 12.8% 하락하면서 육지 대비 22.6원/kWh 차이가 발생하며 전월 대비 축소

□ 10월 평균 REC 현물 가격은 35.2천 원/REC로 전월 대비 11.8% 상승

- 9월 REC 거래량은 전월 대비 6.4% 증가하였고, 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
 - 전년 동월 대비로는 REC 가격이 13.4% 하락하였고,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3.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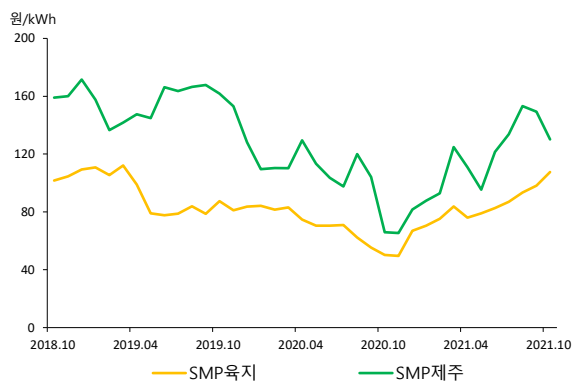
SMP 및 REC 가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SMP통합 (원/kWh)	95.2 (16.8)	90.4 (-5.0)	68.7 (-24.0)	79.1 (3.6)	83.1 (5.1)	87.5 (5.3)	94.1 (7.5)	98.8 (5.0)	107.8 (9.1)
SMP육지	94.6 (16.7)	89.8 (-5.2)	68.3 (-23.8)	78.9 (3.9)	82.7 (4.8)	87.0 (5.2)	93.4 (7.3)	98.2 (5.1)	107.5 (9.5)
SMP제주	146.7 (22.6)	153.0 (4.3)	100.9 (-34.1)	95.4 (-14.1)	121.5 (27.4)	133.7 (10.0)	153.2 (14.6)	149.3 (-2.6)	130.1 (-12.8)
REC 현물가격 (천원/REC)		62.9 (42.2)	42.2 (-32.9)	31.5 (-6.8)	31.6 (0.2)	29.5 (-6.5)	29.9 (1.3)	31.5 (5.3)	35.2 (11.8)
REC 거래량 (REC)	6 288.5 (144.5)	7 191.8 (14.4)	8 921.4 (24.1)	384.2 (-24.4)	571.9 (48.9)	631.2 (10.4)	1 034.2 (63.8)	994.7 (-3.8)	1 058.8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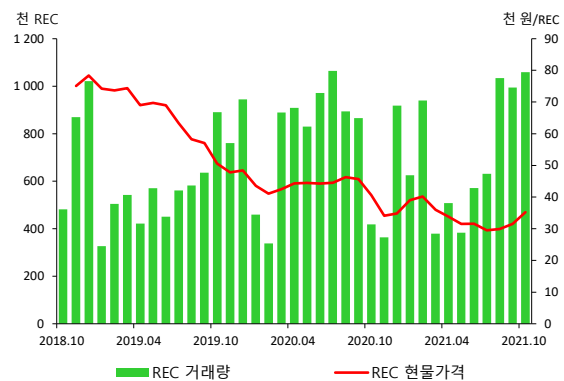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

SMP 가격



REC 현물가격 및 거래량



3.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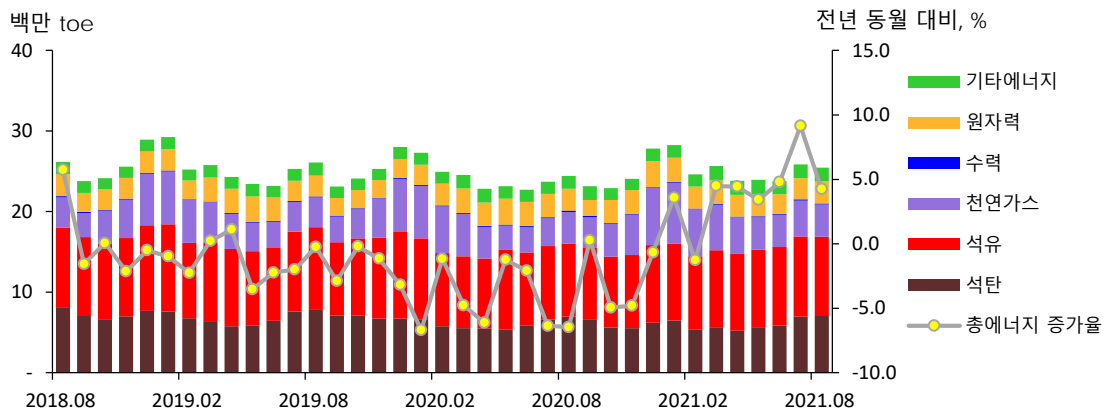
□ 8월 총에너지 소비는 가스와 석탄의 증가세가 발전용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하며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

- 석유 소비는 수송 부문에서의 소비가 정체했으나, 석유화학에서의 소비가 주요국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역대 최대 월 수출액 기록, 석유화학 설비 증설,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
- 가스 소비는 산업 부문에서 소비가 빠르게 증가(11.5%)했으나, 건물 부문의 소비가 감소(-9.6%)하고 전월 급등(50%)했던 발전용의 증가세가 원자력 발전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둔화(4.3%)하며 2.7% 증가
- 석탄 소비는 산업용이 건설, 가전, 조선 등 철강 수요 산업 회복으로 증가세(6.4%)를 이어갔으나, 전월 빠르게 증가(5.4%)했던 발전용이 감소(-1.7%)로 전환하며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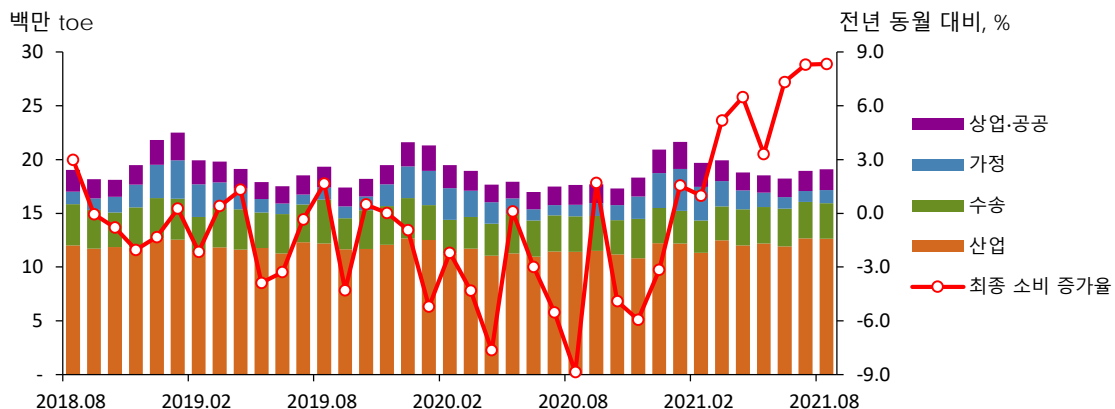
□ 에너지의 최종 소비는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산업과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

-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는 근무일수가 증가(0.5일)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가 코로나19로부터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제조업생산지수가 상승(10.2%)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
-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 수요의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
-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8.9% 증가했는데, 상업 부문의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도시가스 소비가 감소하며 증가세 둔화, 가정 부문의 소비는 재택시간 증가 등으로 전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총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부록> 에너지 가격 및 수급 통계

국제 에너지 가격

	2019년		2020년				2021년			
			1~10월	8월	9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원유 (USD/bbl)										
WTI	57.0	39.4	38.4	42.4	39.6	39.6	66.5	67.7	71.5	81.2
	(-11.9)	(-30.9)	(-32.3)	(4.0)	(-6.5)	(-0.2)	(72.9)	(-6.5)	(5.7)	(13.5)
Dubai	63.5	42.2	41.3	44.0	41.5	40.7	67.8	69.5	72.6	81.6
	(-8.5)	(-33.6)	(-35.0)	(1.6)	(-5.7)	(-2.0)	(63.9)	(-4.7)	(4.5)	(12.4)
Brent	64.2	43.2	42.4	45.0	41.9	41.5	69.4	70.5	74.9	83.8
	(-10.3)	(-32.7)	(-33.9)	(4.2)	(-7.0)	(-0.8)	(63.5)	(-5.1)	(6.2)	(11.8)
국내도입단가 (C&F)	65.5	44.8	44.8	44.7	44.5	43.4	67.6	73.8	73.7	78.2
	(-8.2)	(-31.7)	(-31.7)	(13.8)	(-0.4)	(-2.5)	(50.8)	(0.6)	(-0.1)	(6.1)
LNG										
일본 수입 가격 (USD/MMBTU)	10.6	8.3	8.5	6.3	5.9	6.2	9.9	10.8	11.4	12.4
	(-1.0)	(-21.3)	(-20.1)	(-18.5)	(-7.2)	(5.0)	(15.6)	(4.3)	(5.9)	(8.2)
가스 선물 가격										
JKM (USD/MMBTU)	5.7	4.2	3.4	3.3	4.6	5.9	14.3	16.2	22.9	33.1
	(-26.2)	(-26.6)	(-40.0)	(41.2)	(37.2)	(28.0)	(319.0)	(18.3)	(41.4)	(44.8)
Henry Hub (USD/MMBTU)	2.5	2.1	2.0	2.3	2.3	2.8	3.6	4.0	5.1	5.6
	(-6.1)	(-16.1)	(-21.3)	(32.8)	(-3.4)	(25.3)	(77.3)	(5.7)	(26.9)	(8.9)
NBP (GBP/Thm)	37.6	25.6	22.0	22.5	30.6	40.2	93.1	111.8	168.1	230.6
	(-22.0)	(-31.9)	(-41.0)	(61.5)	(35.9)	(31.2)	(324.0)	(24.8)	(50.4)	(37.2)
국내도입단가 (CIF)	505.4	390.2	401.1	317.4	263.4	275.7	491.0	534.6	571.3	667.9
	(-4.0)	(-22.8)	(-22.2)	(-17.3)	(-17.0)	(4.7)	(22.4)	(7.3)	(6.9)	(16.9)
유연탄										
호주산 (USD/톤)	77.9	60.8	58.2	50.1	54.6	58.4	134.2	169.6	185.7	236.9
	(-27.2)	(-22.0)	(-27.4)	(-2.8)	(8.9)	(7.0)	(130.6)	(11.6)	(9.5)	(27.6)
국내도입단가 (CIF)	100.7	77.7	78.9	70.7	68.4	70.4	101.5	114.7	126.2	142.2
	(-11.3)	(-22.9)	(-23.8)	(2.8)	(-3.2)	(2.9)	(28.6)	(11.6)	(10.0)	(12.7)
석유제품 (USD/bbl)										
휘발유	72.5	46.7	46.0	48.2	47.2	46.0	78.1	81.0	84.1	98.7
	(-9.3)	(-35.7)	(-36.1)	(3.4)	(-2.0)	(-2.6)	(70.0)	(-5.1)	(3.8)	(17.4)
경유	78.2	49.4	49.0	49.5	44.2	43.9	75.4	76.5	83.0	95.5
	(-7.9)	(-36.8)	(-37.5)	(-1.4)	(-10.6)	(-0.6)	(54.0)	(-4.2)	(8.4)	(15.2)
중유	57.5	39.2	37.9	42.2	39.6	41.2	63.6	65.2	73.5	77.6
	(-11.8)	(-31.9)	(-37.6)	(7.3)	(-6.2)	(4.0)	(67.6)	(-1.6)	(12.8)	(5.5)
프로판	434.6	397.1	388.5	365.0	365.0	375.0	611.0	660.0	665.0	800.0
	(-19.8)	(-8.6)	(-10.6)	(1.4)	-	(2.7)	(57.3)	(6.5)	(0.8)	(20.3)
부탄	441.7	403.8	394.5	345.0	355.0	380.0	597.5	655.0	665.0	795.0
	(-18.1)	(-8.6)	(-10.3)	(1.5)	(2.9)	(7.0)	(51.5)	(5.6)	(1.5)	(19.5)
납사	56.9	40.5	39.7	42.9	43.0	41.7	68.6	70.7	75.0	84.3
	(-15.1)	(-28.9)	(-29.1)	(-1.3)	(0.2)	(-3.0)	(72.7)	(-6.3)	(6.1)	(12.3)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001%, 중유는 고유황중유(180cst/3.5%), 프로판과 부탄은 CP 기준 값

자료: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World Bank, CME,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가격

	2019년	2020년					2021년			
			1~10월	8월	9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석유제품										
휘발유 (원/리터)	1 471.9 (-6.9)	1 381.6 (-6.1)	1 389.2 (-4.7)	1 361.1 (0.1)	1 352.5 (-0.6)	1 333.3 (-1.4)	1 570.2 (13.0)	1 645.8 (1.0)	1 642.7 (-0.2)	1 712.3 (4.2)
등유 (원/리터)	962.4 (2.1)	850.8 (-11.6)	858.9 (-10.6)	816.8 (0.5)	816.6 (-0.0)	811.8 (-0.6)	917.4 (6.8)	940.9 (0.9)	943.0 (0.2)	993.0 (5.3)
경유 (원/리터)	1 340.1 (-3.7)	1 189.8 (-11.2)	1 199.0 (-10.0)	1 163.6 (0.1)	1 154.5 (-0.8)	1 134.0 (-1.8)	1 367.7 (14.1)	1 440.5 (1.1)	1 437.2 (-0.2)	1 509.3 (5.0)
중유 (원/리터)	743.9 (1.2)	573.6 (-22.9)	584.5 (-22.7)	553.7 (5.5)	575.2 (3.9)	533.0 (-7.3)	705.4 (20.7)	750.1 (3.0)	768.2 (2.4)	813.4 (5.9)
프로판 (원/kg)	1 869.7 (-2.6)	1 850.7 (-1.0)	1 852.1 (-0.8)	1 806.0 (0.0)	1 821.0 (0.8)	1 822.1 (0.1)	2 038.8 (10.1)	2 114.5 (3.8)	2 160.1 (2.2)	2 163.4 (0.2)
부탄 (원/리터)	806.2 (-7.8)	791.1 (-1.9)	792.6 (-1.5)	760.4 (0.1)	771.5 (1.5)	771.4 (-0.0)	904.1 (14.1)	952.3 (5.1)	980.5 (3.0)	981.2 (0.1)
도시가스(원/MJ)										
주택용	15.6 (3.9)	15.1 (-3.6)	15.3 (-2.1)	14.2 -	14.2 -	14.2 -	14.2 (-6.7)	14.2 -	14.2 -	14.2 -
일반용(1)	15.6 (4.9)	14.9 (-4.7)	15.0 (-3.1)	13.8 -	13.8 -	13.8 (0.1)	13.9 (-7.8)	13.8 -	13.8 -	13.8 (0.1)
업무난방용	16.1 (4.4)	15.1 (-6.4)	15.5 (-3.5)	14.9 (2.1)	13.7 (-8.2)	12.7 (-7.0)	16.2 (4.5)	17.2 (6.7)	18.1 (5.0)	18.8 (3.9)
산업용	13.8 (6.0)	12.6 (-8.4)	13.0 (-4.9)	12.1 (2.6)	10.8 (-10.1)	9.9 (-8.3)	13.3 (2.5)	14.0 (8.4)	14.8 (6.1)	15.6 (5.2)
열(원/Mcal)										
주택용	65.7 (1.8)	66.2 (0.7)	66.4 (1.5)	65.2 -	65.2 -	65.2 -	65.2 (-1.7)	65.2 -	65.2 -	65.2 -
업무용	85.3 (1.8)	85.9 (0.7)	86.2 (1.5)	84.7 -	84.7 -	84.7 -	84.7 (-1.7)	84.7 -	84.7 -	84.7 -
공공용	74.5 (1.9)	75.1 (0.7)	75.3 (1.5)	74.0 -	74.0 -	74.0 -	74.0 (-1.7)	74.0 -	74.0 -	74.0 -

주: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서울도시가스, 지역난방공사

국내 전력 및 REC 가격

	2019년	2020년					2021년			
			1~10월	8월	9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전기(원/kWh)										
주택용	147.3	147.3	147.3	147.3	147.3	147.3	142.3	142.3	142.3	142.3
	-	-	-	-	-	-	(-3.4)	-	-	-
일반용	84.4	84.4	82.8	105.7	65.2	65.2	77.8	100.7	60.2	60.2
	-	-	-	-	(-38.3)	-	(-6.0)	-	(-40.2)	-
산업용	96.0	96.0	93.5	108.5	78.5	78.5	88.5	103.5	73.5	73.5
	-	-	-	-	(-27.7)	-	(-5.3)	-	(-29.0)	-
기후환경요금	-	-	-	-	-	-	5.3	5.3	5.3	5.3
	-	-	-	-	-	-	-	-	-	-
연료비조정요금	-	-	-	-	-	-	- 2.7	- 3.0	- 3.0	-
	-	-	-	-	-	-	-	-	-	-
발전 연료비 단가 (원/kWh)										
유연탄	56.4	50.6	51.6	50.9	49.1	48.1	53.4	57.8	60.6	63.4
	(3.8)	(-10.3)	(-9.0)	(-4.2)	(-3.6)	(-2.1)	(3.6)	(0.3)	(4.8)	(4.6)
무연탄	66.2	60.5	68.4	69.0	74.6	69.9	66.6	76.3	80.1	79.5
	(2.1)	(-8.6)	(5.0)	(7.6)	(8.1)	(-6.3)	(-2.5)	(18.4)	(5.1)	(-0.8)
유류	182.0	175.5	181.2	174.4	169.9	168.6	173.8	185.3	197.4	203.6
	(10.6)	(-3.5)	(-0.0)	(-3.6)	(-2.6)	(-0.8)	(-4.1)	(3.8)	(6.5)	(3.2)
LNG	93.4	71.8	74.5	63.8	55.2	50.2	86.6	96.7	103.5	108.1
	(-4.6)	(-23.1)	(-22.0)	(-18.8)	(-13.5)	(-9.0)	(16.1)	(9.9)	(7.1)	(4.5)
SMP(원/kWh)										
SMP육지	89.8	68.4	70.4	62.3	55.4	50.2	85.3	93.4	98.2	107.5
	(-5.0)	(-23.9)	(-22.9)	(-12.2)	(-11.1)	(-9.4)	(21.3)	(7.3)	(5.1)	(9.5)
SMP제주	153.0	101.0	106.4	120.0	104.1	66.0	120.0	153.2	149.3	130.1
	(4.4)	(-34.0)	(-31.5)	(22.8)	(-13.2)	(-36.6)	(12.7)	(14.6)	(-2.6)	(-12.8)
SMP통합	90.5	68.7	70.8	63.0	55.9	50.4	85.7	94.1	98.8	107.8
	(-4.9)	(-24.1)	(-23.1)	(-11.6)	(-11.2)	(-9.9)	(21.1)	(7.5)	(5.0)	(9.1)
REC										
REC 평균가격 (천원/REC)	63.0	42.2	43.7	46.2	45.7	40.7	33.8	29.9	31.5	35.2
	(43.6)	(-33.0)	(-33.7)	(3.8)	(-1.2)	(-10.9)	(-22.6)	(1.3)	(5.3)	(11.8)
REC 거래량 (천 REC)	599.3	743.4	764.0	893.9	865.0	418.3	712.7	1 034.2	994.7	1 058.8
	(14.4)	(24.1)	(39.2)	(-16.0)	(-3.2)	(-51.6)	(-6.7)	(63.8)	(-3.8)	(6.4)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전기요금은 주택용(고압, 201~400kWh), 일반용(갑) I,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선택 II 중간부하) 기준

자료: 한전 사이버지점,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총에너지 소비

	2019년	2020년p					2021년p			
			1~8월	6월	7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석탄 (백만 톤)	133.0 (-5.7)	116.6 (-12.4)	78.0 (-11.4)	9.6 (-8.8)	10.7 (-13.1)	11.3 (-10.7)	77.7 (-0.4)	9.5 (-1.0)	11.3 (5.4)	11.5 (1.2)
- 원료탄 제외	98.0 (-7.9)	82.8 (-15.6)	55.9 (-13.8)	6.9 (-9.0)	7.8 (-16.6)	8.4 (-13.3)	54.1 (-3.2)	6.7 (-3.8)	8.3 (6.0)	8.5 (0.6)
석유 (백만 bbl)	927.1 (-0.5)	872.3 (-5.9)	585.0 (-4.8)	71.1 (-0.9)	72.4 (-7.7)	71.6 (-12.0)	609.3 (4.2)	76.8 (8.1)	78.9 (9.0)	77.9 (8.8)
- 비에너지유 제외	451.8 (1.4)	423.6 (-6.2)	277.8 (-7.0)	33.7 (-4.3)	34.3 (-5.3)	34.0 (-16.2)	282.2 (1.6)	36.9 (9.3)	36.1 (5.5)	34.0 (0.2)
LNG (백만 톤)	41.0 (-3.1)	42.1 (2.7)	26.9 (-0.8)	2.4 (0.5)	2.6 (-7.0)	3.0 (6.6)	30.6 (14.0)	3.1 (25.6)	3.4 (29.1)	3.1 (2.7)
수력 (TWh)	6.2 (-14.1)	7.1 (14.4)	4.9 (16.5)	0.5 (6.7)	0.6 (8.0)	1.1 (78.8)	4.7 (-3.5)	0.7 (33.9)	0.7 (16.3)	0.6 (-43.6)
원자력 (TWh)	145.9 (9.3)	160.2 (9.8)	108.3 (4.4)	14.1 (3.6)	13.7 (17.5)	12.5 (2.7)	102.3 (-5.6)	11.3 (-19.6)	12.3 (-10.3)	12.8 (2.0)
기타 (백만 toe)	17.7 (3.3)	18.4 (4.3)	12.3 (3.1)	1.5 (3.7)	1.5 (-0.8)	1.6 (-1.4)	13.5 (9.4)	1.6 (9.9)	1.7 (16.3)	1.7 (6.7)
총에너지 (백만 toe)	303.1 (-1.5)	291.5 (-3.8)	193.6 (-4.5)	22.7 (-2.1)	23.7 (-6.4)	24.4 (-6.5)	201.4 (4.1)	23.8 (4.8)	25.9 (9.1)	25.5 (4.2)
- 비에너지유 제외	244.0 (-1.3)	235.5 (-3.4)	155.3 (-4.9)	18.1 (-3.2)	19.0 (-5.3)	19.7 (-6.3)	160.5 (3.3)	18.8 (4.0)	20.5 (8.1)	20.0 (1.3)
- 원료용 제외	219.6 (-1.5)	212.0 (-3.5)	139.9 (-4.9)	16.2 (-2.6)	17.0 (-5.7)	17.7 (-6.7)	144.1 (3.0)	16.8 (3.7)	18.4 (8.6)	17.9 (1.1)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총에너지 원별 비중

(단위 %)

	2019년	2020년p					2021년p			
			1~8월	6월	7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석탄	27.1	24.8	25.0	26.0	28.0	28.6	24.0	24.7	27.0	27.8
- 원료탄 제외	19.1	16.7	17.0	17.9	19.5	20.3	15.8	16.5	18.9	19.5
석유	38.7	37.8	38.1	39.7	38.3	36.9	38.2	40.8	38.4	38.5
- 비에너지유 제외	19.2	18.6	18.3	19.2	18.4	17.6	17.9	19.7	17.7	17.0
LNG	17.7	18.9	18.1	14.1	14.5	16.1	19.8	16.9	17.2	15.9
수력	0.4	0.5	0.5	0.5	0.6	0.9	0.5	0.6	0.6	0.5
원자력	10.3	11.7	11.9	13.2	12.3	10.9	10.8	10.1	10.1	10.7
기타	5.8	6.3	6.4	6.6	6.3	6.6	6.7	6.9	6.7	6.7
총에너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는 잠정치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최종 소비

(단위: 백만 toe)

	2019년	2020년p					2021년p			
			1~8월	6월	7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산업	142.9 (-0.4)	137.3 (-3.9)	91.6 (-3.4)	11.0 (-2.6)	11.4 (-6.9)	11.4 (-6.4)	97.4 (6.3)	11.9 (8.7)	12.7 (10.6)	12.6 (10.7)
수송	43.0 (0.0)	39.4 (-8.3)	26.0 (-10.5)	3.4 (-8.2)	3.4 (-4.4)	3.3 (-18.8)	26.2 (0.6)	3.5 (4.3)	3.4 (1.2)	3.3 (-0.2)
가정	22.6 (-3.6)	23.0 (1.8)	15.1 (-1.1)	1.0 (4.1)	1.0 (3.3)	1.1 (-4.6)	15.8 (4.7)	1.1 (5.5)	1.0 (5.0)	1.2 (13.1)
상업	17.5 (-2.3)	17.0 (-2.8)	11.4 (-3.4)	1.2 (2.8)	1.3 (-1.5)	1.4 (-5.2)	12.0 (4.7)	1.3 (6.3)	1.4 (8.8)	1.5 (6.6)
공공	5.4 (-3.2)	5.0 (-6.6)	3.3 (-8.1)	0.4 (-2.6)	0.4 (-5.9)	0.4 (-9.3)	3.5 (5.8)	0.4 (2.3)	0.4 (7.4)	0.4 (5.9)
최종 소비	231.4 (-0.9)	221.7 (-4.2)	147.5 (-4.6)	17.0 (-3.0)	17.5 (-5.5)	17.6 (-8.9)	154.9 (5.0)	18.2 (7.3)	19.0 (8.3)	19.1 (8.3)
석탄 (백만 톤)	48.2 (-2.2)	45.8 (-4.9)	29.7 (-7.8)	3.6 (-10.3)	3.8 (-3.8)	3.9 (-5.7)	31.6 (6.3)	3.7 (3.4)	4.0 (5.5)	4.2 (6.5)
석유 (백만 bbl)	918.5 (-0.2)	865.7 (-5.7)	581.4 (-4.4)	70.7 (-0.7)	72.0 (-7.4)	71.1 (-11.9)	604.0 (3.9)	76.3 (7.9)	78.2 (8.5)	77.5 (9.0)
전기 (TWh)	520.5 (-1.1)	509.3 (-2.2)	338.9 (-3.3)	39.8 (-2.1)	42.1 (-2.1)	44.6 (-6.2)	356.7 (5.2)	42.0 (5.7)	46.0 (9.3)	48.9 (9.7)
도시가스 (십억 m³)	23.3 (-4.1)	22.4 (-3.5)	14.9 (-6.7)	1.1 (-11.6)	1.1 (-9.0)	1.1 (-3.9)	16.0 (7.1)	1.3 (13.9)	1.2 (7.1)	1.1 (4.2)
열·기타 (천 toe)	11.6 (-2.0)	11.4 (-0.9)	7.6 (-2.1)	0.8 (-2.7)	0.8 (-1.6)	0.8 (-6.8)	8.2 (7.6)	0.9 (12.5)	0.9 (10.6)	0.9 (11.2)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최종 소비 비중

(단위: %)

	2019년	2020년p					2021년p			
			1~8월	6월	7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산업	61.8	61.9	62.1	64.5	65.4	64.7	62.9	65.4	66.8	66.1
수송	18.6	17.8	17.6	19.8	19.3	18.8	16.9	19.2	18.0	17.3
가정	9.8	10.4	10.2	6.1	5.5	6.1	10.2	6.0	5.3	6.3
상업	7.6	7.7	7.8	7.3	7.6	8.1	7.7	7.3	7.6	8.0
공공	2.3	2.3	2.3	2.3	2.3	2.3	2.3	2.2	2.3	2.3
최종 소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석탄	13.9	13.7	13.4	14.0	14.6	14.7	13.6	13.6	14.2	14.4
석유	50.2	49.3	49.7	52.7	51.7	50.7	49.2	52.9	51.9	51.0
전기	19.3	19.8	19.8	20.1	20.7	21.7	19.8	19.8	20.9	22.0
도시가스	11.6	12.0	12.0	8.6	8.3	8.2	12.1	8.9	8.2	7.8
열·기타	5.0	5.2	5.2	4.6	4.7	4.7	5.3	4.8	4.8	4.8

주: p는 잠정치
자료: 에너지통계월보